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'12년 6월 26일(화) 00:3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유성우 FTA팀장(02-2110-5390), 장미연 사무관(5394), 한혜원 주무관(4843)	

"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인 콜롬비아와 FTA 타결 "

-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기반 마련 -

□ '12.6.25(월)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된 한·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(FTA)이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함

* 추진경과 : '09.12월 협상개시 이후 7차례 공식협상 및 7차례 회기간 협상 개최
* 향후일정 : 타결선언(6.25)→가서명(올 하반기)→정식서명→발효(국회비준동의 후)

○ 금년은 한·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, FTA 타결이 양국간 협력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○ 지경부는 한·콜 FTA 발효에 대비하여 콜롬비아 현지에서 '보고타 한국상품전(Expo Corea 2012)'을 개최하여 한국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콜롬비아 시장을 진출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

* 보고타 한국상품전(6.21~24, 보고타 국제무역전시장) : 현대·기아차 등 대기업 및 대신하이시스 등 우수중소기업 70개사가 참여한 콜롬비아 최초의 한국상품 전시회

□ 콜롬비아는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으로(인구 4,600만, 중남미3위)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시장임

* 경제성장률(%, 콜 통계청 발표) : ('09)1.7 → ('10)4.0 → ('11)5.9
** 외국인직접투자(FDI) : ('10)68억불 → ('11)144억불 (113.4%⇑, 증가율 중남미 1위)

○ 양국간 교역은 우리나라가 자원 및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서, 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게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

* 주요 수출품목('11년, 비중): 승용차(4.6억불, 28.6%), 車부품(3.7억불, 22.8%), 합성수지(1.0억불, 6.4%), 화물차(0.6억불, 4.0%), 타이어(0.4억불, 2.7%)
* 수입품목 : 커피(1.1억불, 29.9%), 원유(0.7억불, 19.7%), 합금철(0.6억불, 15.5%) 등

○ 특히,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콜롬비아 관세율이 높아 FTA를 통해 현지 시장에서 중국·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위 확보가 가능해짐

* 한·콜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 FTA임
* 주요 품목별 관세율(%) : (승용차)35, (車부품)5~15, (합성수지)0~15, (타이어)15

□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여(품목수 기준 우리측 100%, 콜측 99.8%), 향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

○ 양국 공산품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절대적 경쟁 우위*임을 감안하여 우리측 관세철폐가 다소 빠르도록 합의하였으나,

* '11년 對콜 공산품 교역액 : (수출) 16.1억불, (수입) 2.6억불

○ 콜롬비아측 5년 내 단기철폐 비중은 86.7%로서(품목수 기준) 콜의 기 체결 FTA와 비교할 때 콜·美/콜·EU FTA보다 높은 수준을 확보

* [콜롬비아의 기체결 주요 FTA 공산품 양허수준, 품목수 기준]
[콜·미 FTA] (즉시)75.7% (5년내)81.9%, [콜·EU FTA] (즉시)63.9% (5년내)81.4%

< 한-콜롬비아 FTA 공산품 양허수준 비교 >

(품목수 기준, %)

구분		즉시철폐	5년	10년	12년	계
한국	품목수	9,434	9,613	9,629	-	9,629
	비중	98.0%	**99.8%**	**100.0%**	-	100.0%
콜롬비아	품목수	3,821	5,231	6,020	6,031	6,031
	비중	63.4%	**86.7%**	**99.8%**	100.0%	100.0%

□ 원산지 측면에서는 원자재의 해외 수급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여, 자동차·車부품·기계·신발 등 대부분 품목에서 우리 기업이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완화된 원산지기준 채택

* (승용차)역내가치비율 35~45%, (자동차부품)세번변경(4단위) 또는 35~45%, (전기·전자·기계)세번변경(4-6단위) 또는 35~45%, (신발)핵심품목에 대해 역외산 갑피사용 인정

□ 수출 측면에서는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, 車부품, 플라스틱, 타이어, 섬유 등이 중장기적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[자동차/부품] 자동차 및 車부품은 對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56%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품목으로서('11년 9억불), 한·콜롬비아 FTA의 큰 수혜가 기대되는 품목

○ 콜롬비아는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(관세율 35%) 전체 품목에 대해 10년 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,

- 특히, 향후 콜롬비아 시장 성장이 전망*되는 중형 디젤 승용차(1,500-2500cc, SUV)에 대해서는 9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관세를 철폐

* 콜롬비아 승용차 시장 중 SUV 차량은 22.5%를 점유하고 있으며('11년),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 구매성향이 소형차→준중형 및 SUV로 이동 중

- 현재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, 관세 철폐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할 전망

* 우리나라의 對콜 자동차 수출량(대) : ('09)25,334→ ('10)42,256→ ('11)47,992

< 참고 :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의 성장가능성 >

- 콜롬비아 자동차 산업수요 증가율 전망('11~'16) : 4.5~14.3% (출처:global insight)
- 인구 1,000명당 신차 구매대수 : ('09)4.1대 → ('10)5.6대 (증가율 36% ⇑)
- 수입차 점유 비중 확대 추세 : ('09)43%→ ('10년)46%→ ('11년)50%

○ 자동차 부품(관세율 5~15%)에 대해서는 5년 내 모든 관세를 철폐

- 완성차 수출 증가에 따른 지속적 A/S 부품 수요 증가와 더불어 직접적 관세 인하가 우리 중소 부품업체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

[석유화학] 對콜 석유화학수출의 70%를 차지하고 있는 합성수지는 관세가 5%~15%로 높아, 관세 철폐시 큰 폭의 수출 확대 기대

○ 특히, 주요 수출품인 기타 폴리에스테르(관세 15%, 7년철폐), 폴리프로필렌(10%, 7년) 등에 부과되는 고관세가 철폐되면 중국,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

[타이어]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타이어 시장으로, 중국,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 보다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 개선이 기대

* '10년 시장점유율 : 중국 25.8%, 일본 16.4%, 미국 10.8%, 한국 5.1% 등

○ 수출의 99.7%를 차지하는 버스 및 화물차용,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해 15% 관세를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

○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관세 인하 혜택이 우리 타이어의 對콜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

[섬유] 콜롬비아 의류산업 호황*으로 인해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우리 제품이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확대 기대

* 콜롬비아 의류시장은 '11.1~9월 전년동기대비 16.8% 성장, 의류 원단은 수입제품이 60%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동기간 26.2% 증가 (출처: '11.11월, 보고타무역관)

○ 대콜 섬유교역은 화섬사, 화섬직물을 포함한 섬유 소재를 수출하고 중저가 의류제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로서, 콜롬비아 의류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섬유 수출에 기회

○ 주력품목인 화섬필라멘트사, 편직물류를 포함하여 수출액 93%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5년 내 모두 철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

- 특히, 우리 주력제품에 대한 관세는 15~20%의 높은 수준으로 관세철폐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및 선호도 개선에 기여할 전망

[전자] 콜롬비아는 우리 전자산업의 절대적 수출 우위 국가로서 FTA 체결을 통한 관세인하 및 이미지 제고 등으로 수출 시장 확대 가능

* '11년 對콜 전자제품 교역액(MTI 81,82) : (수출)74.8백만불, (수입)1.7백만불

○ 특히,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 등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상승 기대

* 품목별 주요 세번의 관세율 및 양허현황 : (냉장고) 20%, 10~12년 철폐, (세탁기) 15~20%, 5~12년 철폐, (에어컨) 15%, 즉시~5년 철폐 등

참고 한-콜롬비아 무역 및 투자 현황

□ **(교역)** '11년 기준 對콜롬비아 수출은 16.1억불로 45위, 수입은 3.8억불로 70위를 기록하는 등 교역량이 점차 증가 추세 (흑자 12.3억불)

< 對콜롬비아 연도별 수출입 추이>

(단위 : 백만불, %)

년 도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 (1~5)
수 출	297	459	624	913	1,121	1,091	797	1,389	1,614	684
(증감율)	(9.0)	(54.9)	(35.7)	(46.3)	(22.8)	(△2.7)	(△26.9)	(74.2)	(16.2)	(2.3)
수 입	76	106	137	206	116	143	125	432	380	120
(증감율)	(55.7)	(39.7)	(28.6)	(50.4)	(△43.7)	(23.3)	(△12.6)	(245.9)	(△12.1)	(△46.5)
무역수지	221	353	487	707	1,004	947	672	956	1,234	564

<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입 현황 >

(단위 : 백만불, %)

순위	수 출			수 입		
	품 목	2011	2012(1~5)	품 목	2011	2012(1~5)
1	승용차	462(20.6)	227(10.0)	합금철	58(△24.5)	38(10.9)
2	자동차부품	369(2.5)	110(△29.6)	커피류	114(64.9)	33(△46.2)
3	합성수지	104(46.7)	44(12.4)	유연탄	36(△78.5)	17(△51.3)
4	화물자동차	64(26.6)	29(6.4)	농약	9(△27.5)	6(22.9)
5	타이어	44(50.7)	22(33.5)	동괴및스크랩	32(7.5)	6(△68.6)

* 자료 : 한국무역통계(http://kita.net), MTI 4단위 기준

□ **(투자)** '12.3월까지 한국의 對콜롬비아 투자 총액은 4.1억불(신고기준)

○ 주 투자업종은 제조업(28건 235백만불), 광업(10건 87백만불), 도매·소매업(16건 45백만불) 등이며, 주 투자자는 대기업이 약 86.8%

* 투자기업 : 삼성, 현대, LG, 대우, KT, SK에너지 등

< 한국의 對콜롬비아 투자현황 >

(단위 : 천불)

구 분	'03년	'04년	'05년	'06년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(1~3)	누 계
건 수	2	2	2	3	3	3	8	7	16	8	78
금 액	440	158	492	4,859	21,925	1,034	40,261	38,606	118,609	148,521	408,947

* 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(keri.koreaexim.go.kr)

○ 콜롬비아의 對한 투자는 '11년 기준 3건으로 61.1만불(신고누계)이며, 모두 서비스업 투자